

## 기록전문직은 사회정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랜달 지머슨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기록의 힘 :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2016

설 문 원\*

기록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기록은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의 자유와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힘이 세다. 미국아키비스트협회 회장을 역임한 저자 랜달 지머슨은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사원(temples), 감옥, 식당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설명한다. 사원은 사회적 기억의 형성자로서, 감옥은 기록의 보존과 안정을 위한 통제자로서, 식당은 기록과 이용자를 중재자이자 기록의 해석자로서 아키비스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메타포이다. 이러한 권력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들이 흔히 자신들은 힘이 없고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지머슨은 비판한다. 권력으로서 기록이 가진 힘을 인식하고 사회정의에 응답하는 전문직의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이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이 모두 동사형인 것은 아키비스트의 실천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라고 한다. 제1장 ‘선조들의 삶을 재구성하기’에서는 고대 이후 기록관리와 아카이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 출현한 국민국가의 관료행정상의 필요에 기초하여 유럽의 아키비스트들이 기록관리이론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 “미국사회를 기록화하기”에서는 초점을 미국에 맞추어, 이원적으로 발전해온 매뉴스크립트 전통(지방역사회 등)과 아카이브 전통(기관 아카이브)의 기원과 그 전개과정을 보여주면서 미국 사회에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3장 “정치권력에 저항하기”는 존 로스의 시 “기억상실증에 대항하여”라는 시로 시작한다. 이 장에서는 기억, 진실, 기록화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면서 “확립된 정치권력에 대한 대항하는 균형장치”로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지 오웰의 작품을 통해 “정치권력이 정보, 문서, 과거의 기억에 대한 통제와 결합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억압적 체제에 저항한 작가 사례로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소설이 과거의 기억과 과거에 대한 서술을 통제하는 체제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한다.

제4장 “기억을 구축하기”에서는 인간의 기억, 집단기억, 역사적 해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개인기억 및 집단기억과 관련하여 정체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기록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를 정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지머슨은 특히 아카이브를 통한 사회적 기억의 구축이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5장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차별

과 억압에서 벗어내기 위한 긴 여정이 바로 아카이브에 담겨있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한다. 지머슨은 설명책임성, 열린 정부, 다양성,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록관리를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카이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아키비스트의 윤리와 책임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제6장 “정의의 소명에 응답하기”에서는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것이 보존기록관에서의 아키비스트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평가 선별, 기술, 서비스 등)와 전문직의 대외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지난 세기에 아키비스트들이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객관성은 중립성이 아니다”, “아카이브에서 이방인(사회적 약자나 소외집단이나 계층 등) 환영하기” “내부비리 폭로하기” 등과 같은 주장을 통해 전문직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며, 사회정의에 대한 단호하고도 열린 태도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윤리를 다루고 있다. 설명책임성, 다양성,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아키비스트들이 전문직 윤리를 개념적으로 실천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이 책은 매우 계몽적이면서도 재미있다. 공공기록관리 정책이나 실무, 혹은 민간기록관리의 실무적 측면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의 기록관리계에 본질과 가치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계몽적이다. 한편 다양한 메타포, 그리고 소설과 시, 인용문을 통해 기록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즐겁다. 독자가 저자의 관점을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애사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영문판으로 이 책의 일부를 읽고 논문에 인용하기도 했지만 분량과 내용이 방대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충실한 번역본이 나와서 매우 반가웠다. 번역서의 큰 미덕에 비하면 사소하지만 원서의 권말색인이 누락된 것과 인명 표현에 일관성이 없는 점은 아쉽다.

기록학을 공부하는 학생, 연구자들에게는 세미나를 통해 함께 읽어 보기를 권한다. 기록관리의 새로운 연구와 실천 영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록관리정책이나 행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기록관리의 소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